



**스위스 관광청, 최초의 인플루언서 서밋 개최.**  
**전 세계 관광청 최초로 열리는 인플루언서들의 만남**  
 온라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주목하라  
 글로벌 관광업계에도 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레만 호반에 마련된 전 세계 탑 인플루언서들의 놀이터  
 스위스 관광청과 이들의 협업 기대되  
 이들이 체험하고 공유할 결과물도 전세계 이목 모을 것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부른다. 이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현재 글로벌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 중 하나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약 2조 2600억원)에 달하며, 오는 2020년에는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전 세계 관광청 최초로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의 만남을 주선한다. 1주일 동안 이들 인플루언서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높은 수준을 마련해 소셜 미디어에서 스위스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더 많이 등장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이 관광 분야에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자연을 찍은 사진, 하이킹, 자전거와 같은 특정 테마에 관련된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 관련 기관들도 훌륭한 인플루언서들을 구별해 내 그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 21개국에서 초청된 29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2018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관광청 인플루언스 서밋(Switzerland Tourism Influence Summit)”이라는 타이틀 아래, 몽트뢰 리비에라(Montreux Riviera) 지역에 모여, 세계 최고의 프로페셔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스위스 관광청이 어떻게 혁신적이고 선구적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의 인기 여행 페이지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가 초대를 받았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치러지는데, 첫 3일 동안은 브베이(Vevey)에서 모여 컨퍼런스와 워크숍,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 세계 유명 여행가, 각 지역의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글과 사진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레만(Léman) 호 지역에서 그 예시를 다루며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 3일 동안은 스위스 전역으로 체험 여정을 떠난다. 하이킹에 관심이 높은 인플루언스팀은 크랑 몬타나(Crans-Montana)로, 산악 자전거팀은 플림스(Flims)로, 알프스 라이프 스타일 및 럭셔리 팀은 그슈타드(Gstaad)로, 건축팀은 로잔(Lausanne)과 바젤(Basel)로, 자연 사진 팀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지역으로, 푸디들은 취리히(Zurich)로 여정을 떠난다. 이들이 체험한 결과물들은 9월 안에 해시태그 #inLOVEwithSWITZERLAND 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